

21세기 조경교육방향

서웅철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조경이라는 말이 전문분야로 대학에 학과로서 개설된지 3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5,000여명의 조경전공 재학생과 누적 졸업생 20,000여명을 거느린 조경 전문가 집단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그동안의 산업화로 일그러진 자연환경의 회복과 도시환경의 개선에 기술 첨병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느끼며 한편으로는 건설관련제도의 친환경성 확보라는 새로운 시대적 요청으로 조경인의 책무가 더한층 무거워지고 있다. 실로 건축과 토목 그리고 조경 등 건설관련 전문성은 국토개발에 따른 건설산업과 연계하여 질과 양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학교교육은 그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전문가 생산기로서 교과 과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해가며 사회적 요구에 대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등 학문 외적인 요인에 의해 조경학 전공의 존립 여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요소가 발생하였고 학문의 경쟁시대에서 건축, 원예, 토목 그리고 응용미술 등 인접분야와의 경쟁이 발생하여 울타리 없는 새로운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내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로 대표되는 기술개방 시대를 맞아 이 경쟁의 장이 국경 울타리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동안 양적 성장만을 자평하며 질적 성장을 소홀해 오지 않았나?”, “우리의 전문성이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여 왔나?”, “전문성에 대한 교육내용과 과정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합당했나?”, “사회적 책임과 동시에 법률적 지위를 얻기 위한 영역확보 및 기술향상에 과연 노력하였나?”, “새로운 시대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조경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이 연구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경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과 사회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과 100여년 조경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우리 교육과 비교 논의하여, 이 논의가 향후 조경교육의 내용과 방향설정을 위한 진지한 토론의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

II. 본론

우리나라의 조경교육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은 근대적 조경교육이 정착된 서양 조경학이 탄생후 70여년이 경과된 시기였고 문화적 특성이 유사한 일본의 조경학이 자리를 잡은지 25년이 이미 지난 시기였으므로 한국 조경학의 골격은 이들 국가로부터 교육과정 및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조경의 전통적 예술성과 현대적 재료와 기술의 만남이 오래 전에 이미 이루어져 현대조경교육의 규범이 이미 형성되었고 생태학적 지식들이 밝혀지고 있던 때였으므로 오늘날의 교육과정과 내용에 유사한 조경학이 손쉽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많은 조경학과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교과과정과 교과내용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컴퓨터관련 과목의 개설 등을 제외하면 30년 전의 교과과정과 교과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조경학의 학문적 본질을 제외하더라도 197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개설되기 시작한 조경학은 이 시기의 성장하는 국내외 건설시장과 맞물려 동반 성장을 해왔다는 것도 사실이며 이제 전국적으로 32개교, 5,000여명의 재학생이 자신의 미래를 걸며 조경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건설관련 전문성을 지닌 조경학은 사회 속에서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는 속성 때문에 새로운 국토개발과 건설환경에서 새로운 교과과정과 내용을 요청 받고 있다.

1. 교육과정의 문제점

첫째, 학부제, 복수전공, 최소학점제, 모집단위 광역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전공교육을 위한 교육시간 부족 등 전공 외적 요인에 의한 조경교육이 부실해지고 있다. 교육수요자로서의 중심이동이라는 교육행정의 원칙에 따라 조경학 등 전문교육을 필요로 하는 기술분야에까지 졸업을 위한 전공교육이 중심을 잃고 있다. 현재 대부분 조경학과의 경우 전공학점의 졸업이수학점에 대한 비율이 30% 정도로 이름뿐인 전공학사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실무와 격리된 교수사회에 대한 문제이고 이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교원의 임용자격에서부터 승진하기까지의 규정이 강의 내용과 연관된 실무성과물이 아닌 개인별 연구성과물이기 때문에 설사 임용 전 실무와 밀착된 교원이라도 임용 후에는 자연스럽게 실무와 멀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실무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할 설계 수업마저 현실과 동떨어진 가치 초월적 해결방법으로 결말이 나곤 한다. 최소한 설계를 담당하는 교수는 임용에서 승진까지 평가내용이 실무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인접분야와의 배타성이다. 조경이 관련된 국토 또는 도시문제는 건축, 토목, 도시계획, 생태학 등 인접분야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단순한 사례도 이들 분야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인접분야와의 강의교류, 학제개편 등을 통해 조경의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다.

넷째, 교수의 부족이다. 대부분의 학과가 전임교수 4-5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수당 학생수가 30명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실습교육(설계과목 등)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경쟁력 없는 졸업생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교육개방에 따른 교육과정의 정비가 요청된다. WTO 체제하에서 기술 시장개방에 따른 상호인증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향후 필연적이다.

여섯째, 실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과목의 증설이 필요하다. 조경학의 존재가 조경학의 태동기부터 건설 관련분야속에서 확인되는데 개설과목 대부분이 강의중심이거나 가치초월적 주제와 관련된 교과목들이다.

2. 교육내용의 문제점

첫째, 조경에 대한 내부적 정의가 필요하다. 조경학이 뿌리를 내린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조경에 대한 정의는 조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전공과목의 필독 서적에 나타난 조경의 정의는 Hubbard, Kesler, Hackett 등 근대 조경가들의 수십년전 서평적 정의만이 아직도 인용되고 있고, 때로는 “...옥외공간의 계획 및 설계...” 등 건축의 하부기능을 자인하는 정의도 전공도서에 버젓이 등장한다. 조경교육의 유일한 단체인 조경학회의 목적이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연구와 회원들의 지위향상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로 나타나고 있고 학회의 유일한 정의가 “인공적으로 자연, 산수의 경치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정원이나 공원 등을 꾸미는 일.”로 지극히 고답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현실이다.

외부적으로 건설관련법규에 조경이 등장한지 20년이 지나도록 “...식수 등 조경에 관한 조치...” 등 이심전심적 정의가 이 거대한 전문집단의 정체성을 규정지어왔다. 2000년 6월의 건설교통부 “조경기준”이 탄생하면서 “조경이라 함은 생태적, 기능적, 미적으로 조경시설을 배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정의됨으로서 비로소 타율적으로 조경의 본질이 비교적 구체성을 띤 법률적 선언으로 탄생했다. 전공과 관련된 단독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지위만을 얻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에 대한 유일한 토론장인 학회에서 전공의 영역과 전문성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특별기술자만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현대과학이 분야별 전문 분화를 하면서 빛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적인 해결방법을 요구하는 조경학의 본질을 고려하면 특별 기술자보다 오히려 일반기술자를 요구한다.

셋째, 사회에서 필요한 실무와 호흡을 못 맞추는 실기수업내용의 문제이다. 건축 등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소재가 다양하여 상대적으로 실습기회와 효과가 적은 현실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20명에서 40명을 넘나드는 수강인원의 과다로 기술교육의 특성인 1:1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고 단일주제에 대한 팀별 학습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초기단계부터 완성까지 문제의 고비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은 조경의 속성상 면대면 교육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공간지각능력이 불량하고 상세(Detail)에 미숙한 비전문가가 양성된다.

넷째, 아직도 공급자 위주의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다. 학문의 속성도 생물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교과목의 개설, 강의내용의 편성 등이 요구된다.

다섯째, 실무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컴퓨터 등의 실습기기의 확보가 설계들 실습과목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고답적인 “교육부의 시설기준” 등 제도와 예산부족 등으로 실습환경이 어렵다.

3. 외국사례 (표 2)

1) 미국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조직이 학회가 아닌 조경가협회(ASLA)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과내용은 전문학사(BLA)수여에 따른 전문가 양성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전문가 협회에서 교육과정과 내용을 평가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따라서 교육과정과 내용이 실무 위주로 설정되어 있다. 한편 교육가협회(CELA)가 결성되어 교육방법 등이 정기간행물(Forum on Education)에 의해 토론되고 있고 이 교육가협회도 교육프로그램 인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과정과 내용이 실무 위주로 편성된 미국의 조경학과 학부교육의 특성은 우리의 경우와 다른 다음과 같은 특성이 존재한다.

- ① 졸업이수 학점당 전공과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62%).
- ② 교수당 학생수 비율이 높다.
- ③ 실무교육이 설계수업에 집중되어 있고 설계수업의 기간이 길다(8학기).
- ④ 학점당 설계수업시간 수가 길다(학점당 2시간).
- ⑤ 졸업후 실무에 즉시 진입하기 위한 준비과목들이 설강되고 있다.
- ⑥ 컴퓨터 응용과목 등은 별도로 개설되지 않고 일반 설계시간을 통해 강의된다.
- ⑦ 학생의 실습능력에 따른 개인실습과제 과목이 존재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조경학과는 학과 또는 학부내 연구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구실 중심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조경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 내에 연구실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조경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세부 연구실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이다. 첫 번째의 경우는 조경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다루는 연구실이 아니라 세부전공연구실로, 하나의 학과로 인정되며, 학생들은 2학년 진학 시

표 1. 조경학과(학부) 교육과정의 비교

	한국	미국	일본
학교수	32	45*	4
재학생수	5,000명	3,000명(UGA:230명)	1,500명
교수수	140명	250명(UGA:30명)	40명
소속	농과대학 자연자원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rchitecture School of Architecture School of Natural Resources School of Design Dept. of Geography	농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교육기간	4년	5년	4년
졸업이수학점	140학점	156학점	145학점
전공학점	42학점(30%)	96학점(62%)	45학점(31%)
입시제도	학부제	독자전형	학부제

* 조경가협회(ASLA)의 인증기관(LAAB)에서 인증(Accredited)된 학교수

표 2. 교과목의 비교

	한국(대구대학교)	미국(Univ. of Georgia)	일본(동경농업대학)
계획 및 계획이론	조형연습 조경계획 환경계획 조경생태학 식재계획 및 설계론 도시조경사태연구 환경 및 경과영향평가 도시환경론 여가행태론 광역조경계획 농어촌계획	Ecological Basis of Environmental Issues Reading Landscape Landscape Ecology Applied Landscape Ecology Planning and Design Field Study in Contemporary L.A. Contemporary L.A. Theory	조원학개론 조형연습 조원계획학 Landscape 해석론 Landscape 디자인론 도시녹지계획학 도시계획학 관광레크레이션 계획론 조원양서강독
설계	조경이론 및 설계*	Landscape Architecture Studio** Residential Design Senior Project Independent Project Directed Project in L.A.***	조원제도실습 조원종합실습 I~V 정원설계론 조원설계론 공원시설설계 landscape 작품론
식물	조경식물학(1) 조경식물학(2)	Plants in South Plants of Georgia	녹지식물기초 조원식물학 및 실험 조원수목학 지피학 녹지생태학 식재환경론 조원식재학 녹화기술론 식물학 기초실험 식재관리론 식재기반론
시공 및 공학	조경구조 및 시공학(1) 조경구조 및 시공학(2) 조경공시 및 적산 사면안전공학	Landscape Construction Applied Landscape Construction Landscape Engineering Applied Landscape Engineering	설계시공기초 조원시공론 조원공학 조원시설재료
인접분야	토목학 건축학 단지 및 도시설계 측량학 및 실습	Urban Design and Architecture Dwelling and Community	도시론 지역환경학개론 지역생태학개론 환경계획론 환경보호론 환경심리학 환경평가론 측량 및 GIS 측량학 실습 토목건축작품론
미학	경관해석 및 미학		경관론 풍경지계획학
Computer응용	CADD 응용설계		Landscape Cad 연습
역사	동양조경사 서양조경사		정원사 일본 정원론 조원사
관리 및 실무	조경관리학 조경법규	Urban Entomology Professional Practice L.A. Internship L.A. Post-Construction Documents Portfolio Development L.A. Implementation Documents	공원법규 관광레크레이션 관리론 조원기업론 조원실업론 조원정책론

* 2학년부터 4학년까지 매학기 개설

**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학기 개설

*** 성적우수자에 한해 수강자격부여

연구실을 정하게 되고 취업도 전공 위주로 하게 된다. 두 번째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2학년 때, 연구실을 정하게 되는데 논문지도와 취업방향 설정이라는 두가지 목적 때문이다. 교육과정 또한 연구실 전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생들의 대부분이 조경관련 가업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취업 또한 가업방향에 따라 정해지는 게 특징이다.

III. 결론

대학의 입학자원의 감소와 건설경기의 침체 등 내외부적인 시련을 겪고 있는 조경학은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청계천 복원사업이 국민적 호응을 얻는 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에 둔감한 학문적 속성, 대학의 조직특성 등으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부족한 현실이다. 조경의 본질이 산업과 연계된 현실세계에서 존재하는 한 실무적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관리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 ① 학부제 등 새로운 교육환경 속에서 전문학사 수여를 위해서는 전공특성을 고려하여 졸업이수학점 대비 전공과목 비율을 증가시켜야 한다.
- ② 사회적 요구사항인 실무형 졸업생 배출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필요한 실무적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이 요청된다.

- ③ 전공자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전체적 교육의 질 특히 설계과목 등 실습과목의 집단적인 질 저하 등이 우려되나 수강자의 능력에 따라 개별 실습과목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 ④ 실습과목 특히 설계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의 현장 실습능력을 고취하고 배양시킬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현장과 강의내용이 괴리가 있는 한 실무형 졸업생 배출은 불가능하다. 사회의 설계실무자와 교수와의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현장성이 있는 교수법이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설계담당교수의 업적평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⑤ 학문의 고유 영역이 파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경의 위상 또는 졸업생의 취업영역 등도 인접학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높이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인용문헌

1. <http://www.kila.or.kr/home2/main.php>
2. <http://www.asla.org/>
3. http://www.asla.org/nonmembers/education/pdf/laab_accr-dstndrds_asla_0103.pdf
4. <http://bulletin.uga.edu/bulletin/ind/degrees.html>
5. 대구대학교 요람, 2002~2003.